



NEWS LETTER

2020년 11월 23일 Vol. 390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구급차 구입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은 지난 11월 11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구급차 구입 지원금 4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상월선원 천막결사 1주년을 맞아 상월선원 만행결사 불교종흥 국난극복 자비순례단에 완보증서 전달식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기념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회주 자승 스님과 조성민 의료원장을 비롯해 순례를 완보한 69명의 결사대중과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승 스님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움직이는 약사전이 되어 결사대중 건강을 책임져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조성민 의료원장은 “앞으로 매 순간마다 간절한 힘과 원력으로 불교종흥을 위해 제 자리에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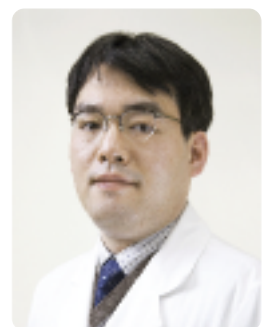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 대한내분비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내분비내과 최한석 교수는 최근 개최된 ‘제8회 2020 서울 국제 내분비학회(SICEM) 추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최한석 교수는 이비인후과 임윤성 교수와 함께 ‘수술 후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랫드 모델에서 AXT914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적 접근(A New Therapeutic Approach Using AXT914 in Rat Models of Post-surgical Hypoparathyroidism)’을 주제로 학회 발표를 통해 우수 구연상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갑상선이나 두경부 수술 후 발생하는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칼슘 감지 수용체 억제제(AXT914)를 이용해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을 시도한 것이다. 최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수술 후 부갑상선기능저하증의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한 정보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 요로 상피암 연구 관련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비뇨의학과 김형석 교수의 연구 논문이 종양학 분야 중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즈 인 온콜로지(Frontiers In Oncology)’ 2020년 10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김 교수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포함해 국내 9개 대학병원의 요로상피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절제된 종양 조직에서 PD-L1 발현율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VENTANA test)를 받은 761명의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국내에서 다루지 않은 요로상피암에서 PD-L1의 실제 임상에서의 발현율과 관련 인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이다”라며 “향후 국내 요로 상피암에서 면역관문억제제 사용 관련 연구들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교수는 비뇨기 종양학 및 복강경 수술로 대표되는 최소 침습 수술을 전공했으며 방광암 및 신장암을 포함한 비뇨기암의 병태 생리 및 예후 인자들과 관련된 여러 임상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40여 편에 달하는 임상 논문의 주저자로서 해외 및 국내의 저명한 SCIE 저널에 다수 게재됐다.

HIS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통합테스트 진행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1월 6일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제1차 통합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2005년 개원 당시 도입됐던 병원정보시스템(EMR)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속도 저하 등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것이다. 사업은 올해 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15개월 간의 일정으로 총 4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단계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확산 등 총 4단계로 HIS 고도화가 마지막 목표다. 이날 통합테스트는 전체 부서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진료(외래·입원·응급·한방), 간호, 진료지원, 원무, 보험심사 등 진료부서별 각종 사례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진행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HIS 구축 추진단은 앞으로 추가적인 통합테스트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